

고창군 4874억 투입 민생 안정 추진

지역상품권·소상공인 용자 지원 확대 등...재원 확보 위해 추경 준비

고창군이 지역경기 회복과 주민 소득향상을 위해 4874억원 상당의 민생 안정 자금을 긴급 투입한다.

고창군은 농어민, 소상공인, 어르신, 청년 등 다양한 계층이 민생정책을 피부로 체감할 수 있게 40개 사업에 총사업비 1953억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주요 군민 실질소득 향상 사업은 고창사랑상품권 지원확대와 소상공인용자 지원 확대, 농민수당 지원, 주요농산물 최저가격 보장기금 운영, 신혼·청년 주택 대출이자 지원, 출산장려금 지원 등이다.

지역경제에 큰 활력을 불어넣고 있는 고창사랑상품권 지원사업은 올해부터 월 구매 한도를 50만원에서 70만원으로 20만원 상향지원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국비를 24억원 추가 확보했다.

특히 착한가격업소를 25개에서 31개소로 확대하고, 착한가격업소 이용 시 고창사랑카드 5% 캐시백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소상공인 용자지원 사업으로 3000만원까지 대출 시 5%의 이자를 지원하고 있었으나, 새롭게 5000만원 한도 연 3% 이자를 지원해 주는 상품을 추가해 소상공인의 선택폭을 넓혔다. 이는 전북자치도 14개 지자체중 가장 높은 이자율 지원사업이다.

농업인의 경영부담 해소를 위해 추진하는 농민수당은 이달 31일까지 신청을 받고 추석 전에 60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생활여건 개선사업은 농촌협약사업과 생활밀착형(장애인)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 취약지역 생

활여건 개선사업, 상하면 보건지소 신축사업 등이다.

고창군은 민생안정 프로젝트의 속도감 있는 추진을 위해 발 빠르게 1회 추경을 준비하며 재원확보에 힘쓰고 있다.

이번 1회 추경은 민생안정과 지역경제활성화를 최우선 목표로 설정하고, 고창사랑상품권 지원, 소상공인 특별보증금 예산 증액, 생활여건 SOC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한 국도비 예산을 반영할 계획이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고창군은 '민생이 최우선'이라는 각오로 군민 지원정책을 세심히 챙겨 나가겠다"며 "모든 답은 현장에 있다. 앞으로 경제현장의 어려움을 직접 살펴 '더 큰 도약'이 좋은 고창'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고창=김형조 기자 khj@kwangju.co.kr



정읍시 영원면 장재리 일원 농가 포장(圃場)에서 '농업기반 기술분야 현장실증연구'를 위한 사료용 옥수수 파종되고 있다. <정읍시 제공>

정읍시 질소비료 현장실증연구 대상지 선정

옥수수 작물 뿌리 통해 흡수율 증대...비료 저감 효과 검증

정읍시가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에서 주관하는 '농업기반 기술분야 현장실증연구' 대상지역에 선정됐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실증시험은 '질소비료 사용량 절감 및 수량 증대를 위한 심층시비기술 현장실증'으로 영원면 장재리에 위치한 농가 포장(圃場)에서 지난 1일 사료용 옥수수 파종을 통해 실증시험이 시작됐다.

심층시비기술은 작물 재배 시 비료를 25-30cm 깊이로 시비함으로써 작물 뿌리를 통해 흡수율을 높이는 원리로 초미세먼지의 원인물질로 알려진

암모니아 배출량을 줄이고 작물의 생산성까지 높이는 기술이다.

국립농업과학원에서는 이번 현장실증을 통해 저리구는 심층시비기를 사용 30cm 깊이로 비료를 투입하고 대비구(관행처리)는 측조시비기로 표토에 살포하는 방식으로 각각 사료용 옥수수를 파종했다. 이번 실증을 통해 질소비료를 25% 절감할 계획이다. 이번 실증을 통해 질소비료를 25% 절감할 계획이며 암모니아 가스 배출량과 생산성을 조사해 다양한 작물에서 질소비료 저감 효과를 검증할 계획이다. /정읍=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parkks@

운곡람사르습지에서 자연과 교감하며 생태 체험

고창군, 25일 생물다양성 탐사 초등생 부터 선착순 60명 모집

고창군이 운곡람사르습지에서 오는 25일 생물다양성에 대해 쉽게 배우고 자연과 교감하며 즐길 수 있는 '고창 운곡습지 생물다양성 탐사'를 개최한다고 7일 밝혔다.

탐사 참가는 유네스코 고창생물권보전지역 홈페이지를 통해 7일 오후 2시부터 신청할 수 있고 보호자를 동반한다면 초등학생부터 참가할 수 있다. 선발 인원은 선착순 60명이다.

식물탐사, 곤충탐사, 양서파충류 및 포유류탐사, 조류탐사 등의 4개 팀(5개 분군) 중 관심 있는 분야를 선택하면 되고 참가비는 1인당 1만원이다.

특히 이번 생물다양성 탐사는 (사)한국식생학회 김창환 회장(전북대 명예교수), (사)한국생태학회 유영환 회장(공주대 교수)을 필두로 각 분야별 박사급 전문가 20여명이 함께 할 예정이다.

탐사 프로그램은 현장 생물탐사인 '워크 프로그램'과 생물다양성에 관해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토크 프로그램'이 진행되며 고창 운곡습지 내에



고창군 운곡람사르습지.

서 탐사된 생물종을 발표하게 된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세계적으로 자연환경이 뛰어나고 생물종이 풍부한 곳으로 선정된 유네스코 고창생물권보전지역에서 생물전문가들과 일반인

이 함께 생물다양성을 탐사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라며 "생물다양성에 관심 있는 국민들의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고창=김형조 기자 khj@kwangju.co.kr

동학혁명이 꿈꿨던 만민 평등 정신 계승

정읍서 11일 기념제...행진·플래시몹·댄스 경연 등 행사 다채

제57회 동학농민혁명기념제가 동학농민혁명기념일인 11일 황토현전승일에 맞춰 전북 정읍 동학농민혁명기념공원에서 열린다.

올해 기념제의 주제는 '동학농민혁명 모두의 하늘을 열다'다. 동학농민혁명이 꿈꿨던 만민 평등 정신과 자주독립 의지를 계승하고 동학농민군이 최초로 승리한 역사의 현장에서 동학농민혁명의 정체성을 새롭게 수립함으로써 혁명 도시의 위상을 제고하겠다는 의미를 담았다.

특히 올해는 동학농민혁명 130주년을 기념해 전국의 동학농민혁명 단체들이 대거 참석한다. 참석자들은 기념공원 내 사발통문광장에 모여 만장기발을 들고 선언문을 낭독하면서 1894년 당시 농

민군 승리의 함성을 외치는 '한마음 한뜻으로'란 퍼포먼스를 선보일 예정이다. 이어 시민, 나라꽃 물매, 청소년, 지역 문화예술인 등 511명이 기념제의 분위기를 고조시키고자 행진과 플래시몹을 펼치면서 '그날의 함성'이란 퍼포먼스를 진행한다. 여기서는 '제3회 세계혁명도시 연대회'에 참석한 아일랜드 코크의 키아란 존 맥카시 시장과 아르헨티나 알타그라시아의 마르코스 토레스 리마 시장 등 이학수 정읍시장과 함께하며 기념제의 성대한 개최를 응원한다. 이 외에도 어린이 합창대회, 청소년 토론대회, 댄스 경연대회가 펼쳐지며 동학농민혁명의 의미를 되새길 예정이다.

/정읍=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parkks@

남원시, 이달부터 구직자 면접 수당 지원

남원시와 남원퀵스타트사업단은 이달부터 취업 희망 구직자들을 대상으로 '면접 수당'을 지원한다고 7일 밝혔다.

이 사업은 '퀵스타트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다. 구직자의 취업비용 부담을 줄이고 적극적 구직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시 최초로 추진된다. 지원은 1인당 1회 3만원, 최대 3회까지 가능하다. 관외 거주자의 경우 5만원을 지급한다.

신청 대상은 주민등록 주소지와 관계없이 남원시 관내 사업장에 취업하고자 하는 19세 이상 구직자다. 취업을 희망하는 법인, 기업, 개인 사업체 면접 전 남원퀵스타트 사업단을 통한 취업 상담 후 알선, 이력서 컨설팅, 동행 면접 등의 서비스도 함께 제공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신청자의 거주지, 면접 응시 여부 등의 제출 서류 검증을 거쳐 선정된다. 참여 희망

자는 '남원퀵스타트사업단'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신청서를 다운 받아 작성한 후 방문 제출하면 된다.

한편 남원퀵스타트사업단은 인력양성 및 기업 지원 전문기관 (사)전북산학융합원이 사업을 맡아 수행 중이다.

최경식 남원시장은 "남원시 최초로 면접수당을 지원하는 사업을 통해 구직자들의 구직활동 부담을 덜어주고 구직활동에 있어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남원=백선 기자 bs8787@kwangju.co.kr

남원서 아시아·전국 초청 게이트볼대회

오늘부터 3일간

제3회 춘향배 아시아·전국 초청 게이트볼대회가 8일부터 사흘간 남원종합스포츠타운에서 개최된다.

남원시체육회가 주최하고 남원시게이트볼협회가 주관하는 이번 대회에는 일본, 중국 등 국내외 선수단 64팀 1000여명이 참가해 예선과 본선 토

너먼트 방식으로 기량을 겨룰 예정이다.

남원시체육회 관계자는 "게이트볼은 노인층에서 남녀노소까지 확대돼 다양한 연령층이 즐길 수 있는 스포츠"라며 "이번 대회가 아시아 지역의 선수들과의 교류를 통해 친목을 다지는 축제의 장이 되고, 게이트볼 종목이 더욱 활성화 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남원=백선 기자 bs8787@kwangju.co.kr

한국토지부동산(주)

전원주택 신축

매매 9억5천만원



전라남도 담양군 수북면

청소년수련관입구

■ 대지 : 979㎡ (296.14평)

■ 건물 : 323.86㎡ (98평)

(지상2층, 지하주차장포함)

상담문의 010-3733-3933